

# 동부권 관광객 폭발적 증가...전라선 KTX 고속철화 최우선

내년초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총력전...전남 4대 철도 현안사업

남해안 고속 대량 수송 교통망 절실  
 목포~새만금 서해안철도 건설도 숙원  
 영호남 격차 상징 경전선 복선화 절실  
 호남고속철도 제주 연장도 반영 염원  
 국가균형발전 고려 구축 계획 세워야

“정부가 개별 사업의 경제성만 따지다 보니 호남은 계속 영남에 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업화에서 소외된 전남, 나아가 호남을 배려하는 국토 균형발전 관점에서 기반시설 투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좁혀지지 않는 영호남 철도망을 두고 전남에서 새어 나오는 울분 섞인 목소리다. 사업 단위가 조(州) 단위의 철도 사업의 경우 정부가 사업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 현미경 심사하는 반면, 국토 균형발전 측면은 소홀히 다루는 탓에 인구가 많고 산업 발전한 지역만 발전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지역 정치권과 손잡고 내년 초 확정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지역사업 반영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 판단을 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무늬만 고속열차,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시급’ =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초 확정될 제4차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을 앞두고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달빛내륙철도 건설 ▲서해안철도 건설 ▲호남고속철도 제주 연장 사업 등 총 4가지 철도 건설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 건의를 바탕으로 구축 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청회, 기획재정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앞으로 10년간 건설할 철도망을 확정 짓는다.

이 가운데 공을 들이는 사업은 ‘무늬만 고속열차’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전라선 구간 고속철 건설 사업이다. 익산~여수 169.9km 구간에 설계 속도 시속 350km의 고속철을 놓는 사업이다. 사업비 4조79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용산-익산-여수 구간은 KTX가 달리고 있지만, 전라선 구간(익산-여수) 철로는 최고 시속 200km의 일반철로에 불과하고 급커브 구간이 적지 않아 느린 운행 속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차역이 많을 때 용산에서 여수엑스포역에 오는 데 가장 3시간 37분이 걸려 고속버스와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10년 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건의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을 찾는 관광객이 2017년 2797만명에서 2019년 3484만명으로 급증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이라며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에 대응하는 호남내륙 남중권 해안을 연결하는 고속 대량 수송 체계 구축 차원에서 전라선 고속철 건설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목포-무안국제공항-함평-영광-고창-새만금-군산 141.4km를 잇는 서해안철도 건설 사업도 전남도의 숙원이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당시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경기 화성-평택-군산 노선을 목포까지 연장해 서해안 경제 협력 축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해안지역 산업·물류·교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2조305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호남고속철도 제주 연장 사업은 목포와 제주를 잇는 철도망 구축사업이다.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제주도 178km 구간에 철길을 놓는 구상으로 2007년 전남도가 처음 제안했다. 자연재해로 연평균 50일 이상 결항하는 제주국제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장 해저터널 건설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경전선·남해안 철도 ‘복선(複線)화’ 절실 = 제4차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 반영을 건의하지는 않았지만, 전남에서 절실한 철도 사업은 전라선 고속철 건설사업과 함께 ▲경전선 복선화 사업 ▲남해안 철도 복선화 사업이다.

경전선은 경남 밀양 삼랑진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연장 277.7km짜리 철길이다. 호남사람들은 경전선을 두고 영·호남 격차를 넘어 호남 차별의 현재 진행형이라 이른다. 경남을 지나 전남 구간에 들어서면 갑자기 느린보 철길로 변하기 때문이다.

삼랑진-순천 구간은 상·하행선으로 분리된 복선, 전철 구간이다. 철로가 왕복 가능한 2개 선 이상이며, 디젤이 아닌 전력으로 운행한다. 반면 순천-광주 122.2km 구간은 단선, 비전철 구간이다. 상행선 기차가 오면 하행선 기차는 역사에 대기해야 하고, 철로 역시 비전철이어서 전기기관차가 아닌 디젤기관차가 다닌다.

민선 7기 들어 지난 2019년 경전선 전남 구간 전철화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오는 2025년까지 전철화 공사가 진행된다. 전철화 사업 추진과 함께 경전선 전남 구간을 조속히 복선화해야 하는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다.

남해안철도 신설 사업도 낙후된 호남의 실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목포-임성-보성 구간 82.5km 구간을 신설해야만 순천-광양-여수 등 전남 동부권은 물론 보성 주민들이 남해안을 타고 곧장 목포로 갈 수 있다.

남해안철도 경남 구간은 해안을 타고 쪽 뚫렸다. 광양-진주 구간과 진주-마산 구간은 이미 복선, 전철화됐다. 마산-부산 구간은 복선 전철화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3년 개통 예정이다. 전남 구간은 이제서야 목포-임성-보성 구간에 철로가 생겨나고 있다. 경남권과 달리 단선으로 놓이며, 애초 디젤기관차가 다니는 비전철 방식으로 추진됐다. 전기기관차가 다닐 수 있는 전철화 사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애초 2022년 개통 예정이던 목포-보성 구간은 개통이 1년 늦춰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5·18묘지 찾은 정의당 신임 대표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9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 후 윤상원, 박기순 열사 묘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문 대통령 “지금이 경제 반등 골든타임...소비쿠폰 지급 재개”

수석보좌관 회의 소비 진작책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바로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된다”며 “그동안 방역 때문에 아껴왔던 정책 시행에 곧바로 착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방역 상황을 봐가며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

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고용동향 통계가 9월 들어 다시 악화했다.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이 신규 채용을 위축시켰다. 청년들의 일자리 시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고자 총

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내년 103만개 공공 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공백없이 집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부는 민간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주고 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회복세에 들어선 수출이 다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비대면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김영록 전남지사, 이낙연 대표 만나 현안 지원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전남형 상생 일자리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등 내년도 국비 확보가 시급한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정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이자 단일단지로는 최대 규모”라며 “48조원을 투입해 450개 기업을 육성하고 전남형 상생형 일자리 12만개를 만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조성을 위해 송배전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국가의 선제 투자, 지원 부두와 배후단지의 조

기구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러 부처 인허가를 총괄 처리할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등 5건의 중점현안과 핵심 3법 등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 반영이 필요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 경전선 고속전철 건설, 2023순천만국제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무안국제공

항 활주로 연장, 바이오 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SOC 및 미래전략산업 분야 15건에 대한 내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지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힘들다”며 “200만 도민의 열망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달라”고 말했다. 한편공대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우선 배정 등은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낙연 당 대표는 전남지역 현안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전남도의 정책과 예산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